

# 경북, 농식품유통 분야 3440억 투입...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

APEC 통해 농식품 인지도 향상  
2026년까지 유통 인프라 확장  
'식품 세계화 전략'으로 판로 확대  
농가소득 안정 위해 직거래 활성화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K-푸드 확산 흐름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유통 분야에 총 34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 가공기업 지원과 유통 인프라 확충,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지원을 통해 도내 농식품의 해외 진출 여건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농식품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전략도 병행 추진한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정상과 각국 대표단에 경북 농식품을 소개하며 품질과 경쟁력을 알린 경험을 토대로 해외 인지도 제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일본·베트남·싱가포르 등 A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와 연계해 시장 개척을 본격화한다.

해외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K-푸드 확산을 농식품 가공산업과 수출 정책으로 연결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2024년 기준 경북 농식품 제조·가공업 매출은 4조 7929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중소·소규모 가공기업 13곳에 총 82억 원을 지원해 시설 현대화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750년 전통의 안동소주는

글로벌 프리미엄 증류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와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별 소비 트렌드와 유통 환경을 반영한 해외 판촉행사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8개국 13개 업체 지원, 해외 상설판매장 8개국 10개소 운영 등에 총 20억 원을 투입한다.

산지 유통구조의 스마트화도 병행한다. 경북도는 디지털 기반 농산물 유통 체계 전환을 목표로 2023년부터 현재까

지 383억 원을 투입해 16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규모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162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판로 다각화와 농가 소득 안정 지원에도 486억 원을 투입한다.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의 신상품 발굴과 제휴 쇼핑몰 확대, 라이브커머스·TV 홈쇼핑·바로마켓 경상북도점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 활성화, 취약 농가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유통 채널을 넓히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한류 확산과 함께 식품 산업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식품 가공·유통·수출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 농식품의 해외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경북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경남도

#### 농어업인수당 60만원으로 인상

경남도가 올해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을 기존보다 30만원 인상하고,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올해부터 인상되는 지급액은 경영주 기준 60만원으로, 2022년 도입 이후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수준을 현장 의견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된 것이다.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는 각 35만원씩 총 70만원을 받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울산시

#### 청년문화패스 6171명 발급

울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6171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와 대상, 사용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넓어지면서 지원 인원은 지난해 3608명에서 6171명으로 늘었다. 지원금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며 사용처도 기존 공연·전시에서 영화까지 포함해 선택 폭을 넓혔다. 발급 신청은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울산=박기선 기자

### 창원시

#### '스마트 경로당' 시범 사업 성료

창원시는 디지털 복지 확대를 위해 구축한 스마트 경로당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스마트 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와 콘텐츠를 경로당에 도입해 어르신들이 화상 교육에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옛 마산권 일원 40개소에 스마트 경로당을 개통하고, 이용 편의성과 프로그램 만족도, 운영 안정성 점검을 위해 주 1회 2회차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 부산·경남, 물 문제 해결 공동대응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간담회 개최 사업 추진상황·주민 질의 답변

부산시는 지난 20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부산-경남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상웅 의원, 의령군수, 창녕군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창녕군 반대대책위원장 등 총 7명이 참석해 사업 전반과 주민 우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합천군을 비롯해 수해 지역인 창원시·양산시·함안시·김해시 부단체장이 배석하는 등 관련 지자체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추진상황 보고(기후에너지환경

부) ▲취수지역 상생협력방안 보고(부산시) ▲질의응답 및 기관별 입장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후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추진상황을 그동안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주요질의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지점별 취수계획과 지하수위 영향범위, 지하수위 감소 대책, 손실보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는 ▲부산-창녕 상생발전기금 조성 ▲창녕군 출신 학생 장학금·기숙사 지원 ▲창녕군 농산물 구입 지원 등 지역 유대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 보개방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를 이뤘고 이를 위해 향후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교환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포항, 동해안 해양관광 거점 강화

### 울릉군 방문해 상생협력 간담회

포항시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해양관광 거점 기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일 울릉군을 찾아 동해안 해양관광 활성화와 권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해양관광 전략을 구체화하고, 울릉도의 해상관광 운영 사례를 공유해 포항-울릉 연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시군 관계자와 포항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거버넌스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울릉도의 해양관광과 크루즈 운항 현황, 야간 관광 콘텐츠 운영 사례,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포항과 접목 가능한 협력 방



포항시는 20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거점 기능을 고도화하고 권역 간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울릉군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포항을 축으로 울릉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권역이 관광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기능을 분담해 상호 보완적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울주, 청년 일자리·주거 등 226억 지원

### 청년정책 34개 사업 본격 추진

울산 울주군이 올해 청년지원사업에 226억 원을 투입해 5개 분야 34개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청년이 만드는 내일, 함께 성장하는 울주'를 비전으로 ▲일자리·창업 ▲주거·결혼 ▲교육·생활 ▲문화·복지 ▲참여·권리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이다.

분야별 투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결혼 분야로, 120억 원이 편성됐다. 울주군 청량 지역에 청년 특화주택 100호를 신규 건립하고,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을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산후 조리비용 지원, 난임 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등 청년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일자리·창업 분야에는 36억 원이 투입된다. 어학·국가공인자격증 등 900여 종에 대한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생애 1회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교재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면접 장장대여 사업은 1인당 연 최대 4회로 확대하고 구두를 지원 품목에 추가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청년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심 연결망 서비스를 신규 도입, 청년 안전망을 강화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산청군·신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배

(신용보증기금)

### 중소 거래대금 미회수 위험 낮춰

산청군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손잡고 관내 중소기업의 거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청군은 지난달 신보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보험료 지원 한도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 제도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지원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은 신보와 경남도 협약에 따른 보험료 50% 지원에 더해 산청군 보험료 20%를 추가로 받는다. 여기에 신보에서 보험료의 10%를 선 할인받을 경우 자부담 20%만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 지원은 중소기업의 부도 위기를 감소시키고 협력사들의 연쇄 도산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안정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 거제시

#### 공공현수막 전면 '친환경' 전환

거제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공공현수막에 친환경 원단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도내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 시행이다.

'거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분청·직속 기관·사업소·의회·읍면동 등 전 부서에서 제작하는 공공현수막에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원단 사용이 의무화된다. 거제시 공공현수막은 연간 6000~6400여 장이 제작·폐기되며 기존 일반 원단 사용 시 연간 약 22.5톤의 이산화탄소(CO<sub>2</sub>)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제(경남)=손병호 기자